

[보도자료] 쿠팡·쿠팡이츠,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와 함께 K-푸드 소상공인 일본 진출 역량 강화 지원 “일본 현지 판매 기회 제공”

2026. 10. 1.



지난 9월10일 'K-푸드 해외 도약 동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입문교육 기념 사진

- 9월 입문교육부터 11월 일본 현지 판매까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우수 참가자 대상 전문가 컨설팅 및 현지 신오쿠보 축제 판매 지원

2026. 10. 01. 서울 - 쿠팡·쿠팡이츠가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와 협력, 국내 소상공인들의 일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쿠팡·쿠팡이츠는 'K-푸드 해외 도약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부터 메뉴 컨설팅, 일본 현지 시장 점검까지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와 체결한 'K-푸드 일본 진출 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일본 진출을 검토 중인 외식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예비 창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한 입문교육을 시작으로 메뉴 컨설팅과 일본 현지 판매 기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최종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일본 현지 축제에서 푸드트럭을 통해 직접 개발한 K-푸드 메뉴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이달에는 '메뉴 컨설팅'을 진행한다.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메뉴를 직접 선보이고 셰프 등 전문가의 평가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 쿠팡·쿠팡이츠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와 메뉴 완성도, 셰프 등 외식 전문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일본 지역 축제에 참가해 K-푸드를 선보일 우수 참가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우수 참가자들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신오쿠보 다문화 한마당축제'에 참가한다. 신오쿠보는 한국 음식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코리아타운이 있는 지역으로, 일본 현지 소비자들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다. 이들은 현지 상권과 외식업 트렌드를 살펴보고 축제에서 메뉴를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일본 시장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이 현지 시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